

中原文化의 歷史的 背景

邊 太 燮

一、中原文化와 歷史的 傳統

中原文化의 발달은 忠州지역의 歷史的 傳統위에 형성된 中原意識의 결과로 이룩된 것이다.

中原지방은 한국역사상 유달리 地方文化가 꽃핀 곳이다. 이 지역에서 中原高句麗碑·丹陽赤城碑 등 韓國古代史 연구에 극히 귀중한 金石文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忠州鴨水沒地區에서 다양한 先史時代遺蹟이 발굴되어 일찍부터 이 곳에 古代文化가 성숙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 후에도 이 곳은 藝術·學問의 文化中心地를 이루고 있었으니, 于勒의 音樂과 強首의 儒學·文章, 그리고 法鏡大師碑에 나타난 羅末·麗初의 佛敎의 흥용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中原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儒學·佛敎·藝術 등 諸般文化가 비상한 발달을 이룬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中原文化의 開花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고래로부터의 화려한 中原文化의 전통과 이 곳이 國家의 중심이고 文化의 본고장이라는 中原意識이 中原文化를 발전케 한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역사상 다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地域文化의 난수는 이곳 中原人의 「中原」이라는 자부심 위에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忠州지방은 三國時代 이래 國原 또는 中原이라 불리웠다. 國原·中原

이란 나라의 중심지를 가리킨 것이다. 중국에서도 中原은 邊境에 대한 中央을 의미하고 蠻夷에 대한 文明人을 가리키며 天子가 도읍한 王畿의 표시로 사용되었다. 忠州지방은 高句麗·新羅 이래 國原 또는 中原의 칭을 지녔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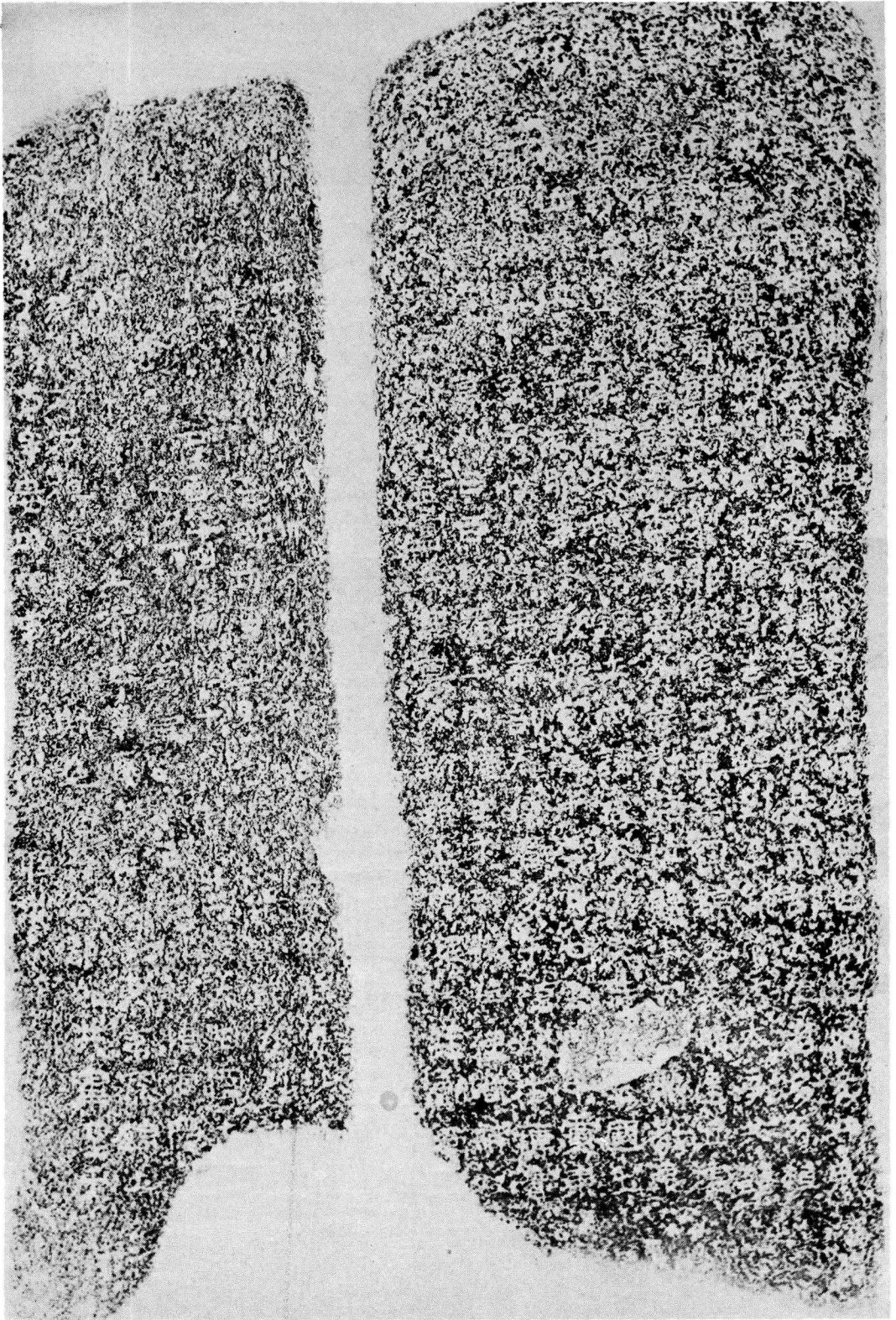
이러한 「中原」이라는 歷史的 傳統과 그에 대한 自尊心이 中原文化를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忠州지방의 先進文化의 歷史的背景 위에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中原人의 使命意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中原文化를 이어온 힘이 되었던 것이다.

二、新羅時代의 中原京文化

三國史記 地理志에 의하면 忠州지방은 본시 高句麗의 國原城이었는데 新羅가 평정하여 眞興王이 小京을 두었다 한다. 高句麗가 진출하기 전에는 百濟의 領有였을 가능성이 많지만 史料에는 아무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廣開土王碑에 高句麗가 百濟를 공격하여 빼앗은 五八城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國原城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五八城의 하나인 古牟婁城이 中原高句麗碑에도 「古牟婁城守事」로 나오는 바 忠州에 이르는 前進基地인 古牟婁城이 廣開土王 때 高句麗에 병속되었으므로 忠州지역도 이때 高句麗의 점유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 하더라도 忠州지역에 대한 百濟勢力의 침투는 그리 定着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①.

高句麗는 忠州 지방을 점령한 후 이곳을 國原城이라命名하였다. 「國原」이란 高句麗式의 지명으로② 高句麗가 이곳을 중심지로서 붙인 이름이었다. 高句麗가 忠州 지방을 나라의 중심지라는 뜻을 지닌 國原城이라 이름붙인 것을 보면 이곳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나듯 高句麗가 신라와의 중요한 外交의 교섭을 이곳에서 벌인 것도 國原城의 이름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高句麗의 國原城은 마침내 眞興王 때 신라에게 병속되게 되었다. 眞



中原高句麗碑(前・側面) 搨本

興王의 北進政策 강행으로 이곳 忠州 지방도 신라의 영유로 화한 것이다. 이리하여 眞興王은 一八(五五七)에 이곳 國原을 小京으로 삼고 이듬해 忠양의 貴族子弟와 六部豪民을 이주시켜 충실케 하였다③. 新羅는 이미 智證王 一五(五一四)에 阿尸村에 小京을 둔 바 있지만 역시 본격적인 小京設置는 이 國原京에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五小京의 효시는 바로 이 國原京 설치이고 나머지 北原京·金官京·西原京·南原京은 三國統一後인 文武王·神文王 때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新羅가 忠州지방을 중요시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곳 忠州에 대하여 국가의 중심지의 뜻을 지닌 「國原」의 칭을 주고 최초로 본격적인 小京을 설치하였으며 여기 王京의 貴族과 豪民을 이주케 하였다는 것은 新羅가 얼마나 忠州지방을 우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新羅王朝는 國原(忠州)을 王京(慶州)에 버금가는 政治·文化의 중심지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新羅가 忠州에 國原小京을 설치하고 우대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新羅의 北進政策의 前進基地로서의 의미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眞興王은 북방진출에 전력을 다하여 一二年(五五一)에는 竹嶺이북 高峴 이남의 高句麗의 一〇郡을 탈취하였고 一四년에는 百濟가 회복한 漢江하류지방까지 빼앗아 漢城(慶州)을 중심으로 新州를 설치하였으므로 忠州지방을 전진기지로 삼으려 國原小京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國原小京은 단순히 軍事的인 前進基地에 한한 것이 아니었다. 이 곳은 小京으로서 政治·文化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新羅가 國原京에 王京에 사는 貴戚子弟와 六部の 富豪들을 옮겨살게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新羅는 그의 北方開拓에 따라 國原(忠州)을 第二의 王都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

國原에 小京을 설치한 것은 眞興王 一八(五五七)년이고 이듬해 貴戚子弟와 六部豪民을 이주시켰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加耶系貴族이 이곳에 集團徙居하였다. 그것은 이미 眞興王 一二(五五二)년 王이 娘城(淸州)에 巡

守하였을 때 國原에 이주해있는 加耶國人 于勒을 불러 加耶琴을 틀게 하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또한 統一期의 大文章家인 國原人 強首가 스스로 「臣本 任那加良人」이라 하여 그 조상이 加耶人으로 國原에 이주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文武王 八(五五九)년 왕이 高句麗征伐에서 돌아오다가 國原 근처에서 國原小京의 長官(仕臣)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때 奈麻緊周의 어린 아들이 加耶舞를 추어 왕을 즐겁게 하였다는 사실은 忠州 지방에 加耶人이 많이 살고 그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다④.

이와 같이 新羅는 國原에 小京을 두고 王京의 貴族子弟를 옮겨살게 하였고 특히 加耶系의 貴族을 집단이주시켰다. 이에 國原은 第二의 王都로서 文化的 中心地가 되었다. 당시의 文化擔當者는 王京에 사는 貴族이었는데 이들이 國原에 이주하고 특히 加耶系의 文化人이 집단사거하게 된 것은 國原文化 발달에 커다란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 살던 強首가 어려서 孝經·曲禮·爾雅·文選에 능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지방에 儒學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國原京은 통일후 小京이 다섯으로 증가함으로써 第二의 王都에서 五小京의 하나로 격하되었다. 이제 國原京은 北原(原州)·西原(淸州)·南原(南原)·金官(金海)과 더불어 五小京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國原小京은 五小京 중에서도 中原의 칭을 가짐으로써 역시 首位의 위치를 계속하게 되었다. 景德王 一六(五八五)년 九州·五小京의 명칭을 개정할 때 國原小京은 中原으로 개칭되어 나머지 四京(東·西·南·北)의 중심임을 나타내게 하였다. 但, 忠州의 中原의 小京은 실제 三國史記에서는 신라 말까지 계속하여 國原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것은 中原京이 五小京의 하나로 격하된 명칭인데 반하여 國原京이란 第二의 王都의 의미를 가진 전통적 칭호인 까닭이라 생각된다⑤.

비록 國原京이 五小京의 하나로 中原京이라 칭하게 되었지만 「中原」의 칭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文化的 中心地의 자부심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忠州지방은 羅末·麗初에는 中原府가 되고 高麗時代에

도 中原道가 되었으니, 이러한 中原의 전통은 언제나 忠州지역문화발달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三、高麗初期 中原府의 豪族文化

新羅時代 中原小京의 역사적 전통은 高麗時代에도 계속되어 忠州지방의 중요성은 다름이 없었다. 고려 초기에도 忠州의 豪族이 王室과 결탁되어 中央政界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地域文化의 독자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高麗太祖 王建은 전국 각지의 유력한 豪族과 결합하기 위한 政略結婚으로서 二五여 豪族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이 忠州劉氏였다. 忠州人 劉競達의 딸이 太祖妃인 神明太后 劉氏로서 定宗·光宗을 출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고려왕조가 忠州지방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세력으로 여겼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忠州지방은 忠州劉氏를 통하여 고려의 中央官界에 진출하였다. 그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劉權說이다. 劉權說은 高麗王室의 外戚으로서 太祖 五年(九二二)에는 侍郎으로 太祖에게 王順式을 회유하는 방법을 간언하였고⑥, 七년에는 「前侍中」로서 王建이 高僧 利嚴을 개경에 맞이하는데 功견되었으니⑦, 그가 일찍부터 太祖와 결탁되어 高官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초기의 忠州지방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淨土寺 法鏡大師碑이다. 法鏡大師 玄暉(八七九—九四一)는 羅末·麗初의 高僧으로 王建과 결합되어 忠州지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곳 淨土寺住持로 功견되고 太祖 二四년에 入寂하였는데 太祖 二六년 崔彥攝가撰한 이 法鏡大師碑는 바로 劉權說이 주동이 되어 건립한 것이다⑧. 이것은 고려 초기에 忠州지방이 禪宗을 통하여 高麗王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주로 忠州劉氏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法鏡大師碑 陰記에는 후원자인 檀越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당시의 中

原人士의 면모를 알게 한다. 여기 檀越은 僧官과 俗官으로 구분되었는데 俗官의 第一이 「權說 佐丞」이다. 權說은 劉權說 그 사람으로 이때는 佐丞의 官階로 표시되었다⑨. 역시 外戚인 劉權說이 開京政府의 侍中까지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忠州지역의 豪族으로 禪門의 후원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밖에 「俊弘 佐尹」의 이름이 있는데 그는 光宗 때 高官인 內奉省令까지 오른 사람이다. 또한 崔氏가 第二階層으로 地方官衙에서 활동하였음이 눈에 띈다.

이 陰記에는 또한 中原府의 地方官衙組織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곳에 독자적인 機構編成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즉 여기에는 中原府에 執事郎中·兵部卿·倉部卿·忠武卿·彥書卿·孔律卿 등의 관원이 나오는데 이는 六典體制의 채용으로 추측된다⑩. 이곳 中原府는 新羅時代 中原小京이 있었던 先進地域이었으므로 唐의 六典體制를 모방한 독자적인 政府組織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⑪.

이렇게 보면 中原지방은 고려시대에도 이고장 豪族들이 開京政府에 참여하여 高官에 올랐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佛教의 융성과 文化의 발달이 이루어져 독자적인 地域文化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四、高麗·朝鮮時代 忠州人の 抗戰

고려시대의 忠州는 八牧의 하나로 界首官의 大邑을 이루고 있었다. 고려는 五〇〇여개의 郡縣 가운데 一四개의 忠·牧·都護府로 하여금 주위의 군현을 다스리는 界首官의 지위를 주었는데 忠州牧은 그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高宗 四一年(一一五四)에는 忠州牧이 다시 國原京으로 승격되었는데, 그것은 蒙古軍의 침략에 대한 忠州人の 抗戰의 보상이었다.

몽고는 高宗 四〇년 大軍을 발하여 고려에 침입 九월에는 忠州에 도달했다. 이때 忠州의 鄉吏인 倉正 崔守는 金堂峽에 伏兵하였다가 몽고

병이 이르자 갑자기 쳐서 적 一五級을 빼고 그 병기를 빼앗으며 포로로 붙잡힌 백성 二〇〇여명을 풀어주었다. 마침내 一〇월에는 몽고의 主力部隊가 忠州를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忠州의 官民은 용감히 싸워 七〇여일을 버티니 양식도 거의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防禦別監 人 郎將 金允候가 큰 소리로 州民을 격려하며 말하기를

「만약 힘을 다하여 싸우면 貴賤을 가리지 않고 모두 官爵을 주겠다」라고 하며 官奴의 장부를 불태워 보이고 노획한 牛馬를 나누어 주니 모두 죽음을 다하고 싸워 몽고군은 할 수 없이 후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몽고군이 더 南下하지 못하고 고려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굽에 유린되지 않게 한 것은 이들 忠州人의 抗戰의 덕택이었으므로 고려정부는 이듬해 四월 忠州를 國原京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⑫.

朝鮮에 들어와서도 忠州는 역시 牧으로 중시되었다. 특히 朝鮮時代에 忠州牧에 忠淸道 觀察使邑이 설치됨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하였던 것이다. 원래 忠州는 고려시대에도 楊廣道에 속하였으나 恭愍王 五年에 忠淸道로 개칭되고 朝鮮초에 楊州·廣州방면이 京畿로 매어짐으로써 忠淸道의 원모양이 되었는데, 太祖 四年에 忠州牧에 道邑이 설치되기에 이른 것이다.

忠州는 古代로부터 交通의 要地로서 중시되었는데 그것은 漢江上流에 위치하고 鳥嶺을 통하여 嶺南地方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忠州는 朝鮮시대에도 여전히 政治·經濟·文化의 지방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觀察使가 牧使를 겸하여 道政의 중심지가 되고 驛院과 漕倉이 설치되어 교통과 경제의 요지를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忠州에는 可興倉이 설치되어 이 부근 郡縣뿐 아니라 멀리 鳥嶺 넘어 慶尙道諸邑의 田稅까지도 여기 집결되어 京倉에 운송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교통의 요지였던 忠州가 壬辰倭亂 때 日本軍 침입의 길목으로 회생을 겪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一五九二년 都巡邊使 申位은 鳥嶺을 넘어 북진하는 일본군을 맞아 忠州 彈琴臺에서 背水의

陣을 치고 싸웠지만 力不足하여 싸움에 패하고 그는 江에 投身自決하는 悲運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忠州에서의 日本軍과의 싸움은 韓末 義兵抗爭에서도 나타났다. 一八九六年 堤川을 중심으로 한 柳麟錫의 義兵軍은 湖西의 중심이며 觀察府가 있는 忠州를 공격하여 日本軍과 官軍을 敗退시켜 이를 점거한 것이다. 이때 義兵陣의 忠州城 공격에는 城 안의 內應者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忠州民의 봉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義兵將 柳麟錫은 忠州入城 후 「撤告內外百官」의 격문을 내외에 포고하고 그 기세가 컸지만 그 후 얼마안되어 보강된 日本軍의 반격을 받고 忠州를 포기하고 말았다. 실제로 抗日義兵에는 忠州出身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이곳의 전통적인 反日意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⑬.

忠州人의 思想과 意識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곳 출신 知識人의 詩文이나 文集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一朝一夕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긴 세월을 걸친 꾸준한 노력을 기다려야 한다.

五、中原文化 發展의 展望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中原文化는 新羅時代 이래 눈부신 발달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歷史的 背景이 오늘의 忠州人으로 하여금 文化繼承의 지를 갖게 하였다. 우리 지방은 나라의 중심이고 문화의 본고장이라 는 「中原」이라는 자부심과 지난날의 화려한 中原文化의 난숙이 오늘의 中原人들에게 文化傳統의 自豪感을 남겨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최대의 수확으로 생각되는 中原高句麗碑와 丹陽赤城碑의 발견을 절코 우연한 일로 보지 않는다. 이곳이 우리 역사상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과 이곳 中原人들의 文化發展의 의지가 兩大金石文의 발견으로 결실되었다고 믿는다. 이 두 金石文은 韓國古代史研究에 절대적인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中原文化는 우리 歷史學界에 크나큰

공헌을 한 셈이다.

우리는 장래의 中原文化의 발전에 대하여 낙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中原人들의 中原文化에 대한 애착심과 그 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남달리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中原文化圈에서 다시 第三、第四의 中原碑·赤城碑의 발전이 계속되리라 하는 것은 결코 헛된 展望은 아닐 것이다.

〈註〉

① 考古美術史 方面에서 中原地區에 百濟의 要素의 유물·유적이 보인다. 단 前적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는 막연한 情形이다. 中原郡 老隱面에 서 發見된 建興五年 銘金銅釋迦三尊佛 光背에 「佛弟子清信女上部」라는 銘文이 보이는데 「上部」는 百濟의 部名이기 때문에 百濟佛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中原高句麗碑에 「下部拔位使者」라 하여 고구려에도 「下部」라는 部名이 보임으로 高句麗佛로 볼수도 있다. 또 中原高句麗碑文에서 「蓋盧」라는 글씨를 推讀하여 이곳이 원래 百濟領土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② 고구려의 16대왕이 故國原王인데 그는 죽은 후 故國原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다. 고구려에는 이 밖에 安原王·陽原王·平原王등 「原」을 붙인 원명이 많은데 그것은 대개 葬地에서 나온 것이었다.

③ 三國史記 四、新羅本記 四。

〔眞興王 十八年〕以國原 爲小京……

〔眞興王 19年 2月〕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④ 林炳泰·新羅小京考(歷史學報 三五·三六合輯, 一九六七)

⑤ 高麗史 地理志에는 忠州의 別號가 藥城이라 하였다 한다. 藥城이란 天城天宮의 城이란 뜻으로 역시 王都의 의미가 될 것이다.

⑥ 高麗史節要 一、太祖五年 七月條

⑦ 朝鮮金石總覽 上, p. 127

廣照寺眞澈大師碑

⑧ 朝鮮金石總覽 上, p. 149.

忠州淨土寺法鏡大師碑。

⑨ 劉權說은 이 法鏡大師碑 뿐 아니라 같은 惠宗元年 建립의 寧越 興寧寺址 澄曉大師碑 陰記에도 「權說 佐丞」으로 나타나고 開城 五龍寺法鏡大師碑 陰記에도 「劉權說 佐丞」으로 표기되어 그가 忠州·寧越 뿐 아니라 開京까지도 佛敎의 후원세력이었음이 나타난다. 高麗史에서 또 「劉權說」 또는 「權說」로 표기되었으니 이때는 아직도 姓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⑩ 이에 대하여는 蔡尙植「淨土寺址 法鏡大師碑陰記의 分析」(韓國史研究 三六一九八二)의 연구가 있다.

⑪ 이 陰記에서 주목되는 것은 檀越의 뒷부분에 「靑州 釋希侍郎」이 나오는 데 이는 光宗 十三年의 靑州 龍頭寺檀竿記에 「金釋希 大等」과 同一人物로 忠州 와 靑州지방 豪族들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⑫ 高宗 四十年의 忠州抗戰에 대하여는 四一年 十二月 고려왕조가 山川·神祇를 함께 제사하고 빌때 다음 祭文과 같이 特記하고 있다.

「:전년 대거 內침하여 諸城이 모두 屠殘되었는데 그들은 이진 기세를 타고 정예한 군사를 몰아 中原(忠州)으로 나달았읍니다. 矢石이 비오듯하고 북치는 소리가 雷聲같이 여러 달을 공격하여 孤城이 거의 함락되게 되었는데, 만일 끝내 지키지 못하였으면 자리를 맡듯이 長驅하여 쳐내려갔을 것입니다. 다행히 神明의 도움을 힘입어 능히 지킬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특히 忠州抗戰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神明의 도움이라 하였지만 사실은 忠州人의 용감한 싸움의 결과였던 것이다.

⑬ 國史編纂委員會에서 간행된 「韓國獨立運動史 一」에 있는 「全國義兵將 道別 調査」를 보면 忠州人으로 義兵에 가담한 사람이 많이 보인다.